# LNG 전 밸류체인 연결… 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사업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합법인 출범**

### 친환경 에너지전문기업 입지 강화
### 연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 상회
### 그룹내 핵심 계열사 위치 공고화
### 탄소중립 주도 친환경 사업 확장

정탁 부회장

최근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체계 수립 및 친환경 전문기업 변화 기조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회사가 가진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발휘해 그룹의 친환경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위해 회사의 핵심사업인 에너지, 철강, 식량에 더해 친환경 미래사업에 투자와 개발을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사인 포스코에너지와 합병을 마치고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종합상사'에서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법인은 연간 매출 40조, 영업이익 1조를 상회하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는 '21년 국내 기업 매출액 기준 11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룹 내에서 포스코와 함께 핵심 계열사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합병을 통한 주요 효과는 ▲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로 요약된다.

양사의 합병으로 현금창출능력(EBITDA)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조 7000억원 대로 향상되고, 부채비율도 200%에서 160% 수준까지 축소되어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된다.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위상도 한층 강화된다. 합병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연결하게 된다.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성장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커진 외형과 향상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 친환경 바이오사업 진출, 수소를 이용한 저탄소 생산·발전체계 구축 등 유망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에너지사업에서는 LNG로 활용 가능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해외 신규 가스전을 지속 개발하고 국내외 발전사업과 연계한 터미널 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그룹 탄소 중립을 주도하기 위해 육·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장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철강사업은 글로벌 톱 클래스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성장산업의 신수요를 적극 개발하면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그룹의 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량사업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해외 곡물 산지에서 조달 능력 증대와 수요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 기반을 강건화 함으로써 식량안보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사업은 구동계 전문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중국, 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 아울러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회사 차원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그룹내 친환경사업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새 수장을 맡은 정탁 신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영업, 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대우에 입사하여 대우인터내셔널 쿠알라룸푸르지사장,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을 두루 거쳤다.

정 부회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익힌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포스코 대표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병에 따른 조직을 조기 안정시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최적임자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정 부회장은 "합병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서로를 배려하여 유대감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글로벌 종합사회사이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3월 말부터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 고금리로 자본 조달 부담 높아
### 유료화 통해 수익성 문제 개선

"사랑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다.(Love is sharing a password.)"

넷플릭스는 최근 가정 구성원이 아닌데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조만간 유료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에 대한 유료화는 3월 말쯤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독보적 1위의 '배짱 영업'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는 또 지난해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효과로 지난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껑충' 증가했다. 이는 광고요금제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만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디즈니도 올해 이 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해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물리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주주서한을 통해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을 가구 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계정 공유에 대한 유료화를 3월 말 경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의 3국가에서 계정 공유에 대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동거 가족에게만 계정 공유를 허용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명까지 계정 공유를 허용했다. 넷플릭스가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계정 공유를 막지 않은 것은 계정 공유가 이용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계정 공유에 대해 유료화에 나섬으로써 수익성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수익성 문제가 생긴 것은 급격히 오른 금리가 큰 영향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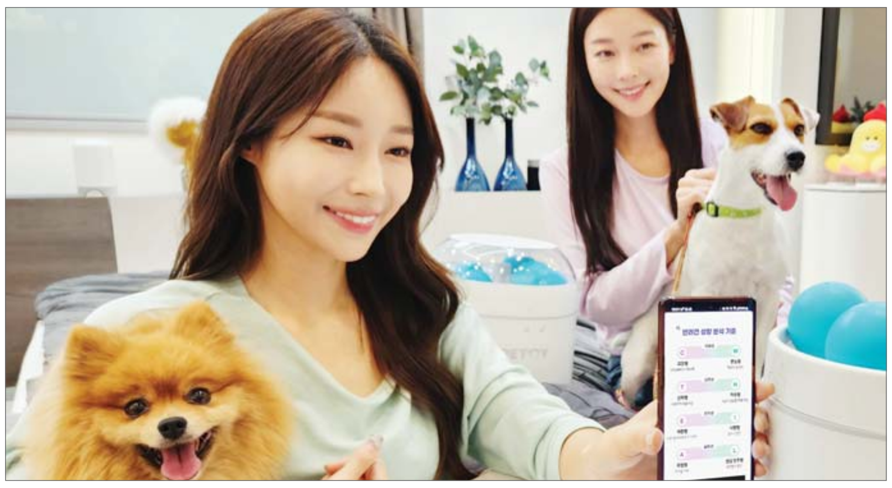
OTT 업체들은 그동안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해 이용자 증가에 초점을 맞춰 회사를 경영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OTT 시장에서 가입자수보다는 수익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난해 3분기 넷플릭스의 결제 구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만명이 줄었다. 결제 구독자수까지 줄며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같이 계정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규 가입자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공동CEO로 광고요금제를 주도해온 그렉 피터스 최고운영책임자(COO·사진)를 선임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광고요금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 CEO는 그동안 콘텐츠를 담당해왔던 테드 서랜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해온 그렉 피터스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채윤정 기자 echo@



**LGU+ "반려동물 용품 쿠폰·적립금 받아가세요"**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용품 전문몰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동물 용품 쿠폰과 적립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어바웃펫에서 DBTI 성향에 맞추어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산책용품과 장난감 등을 추천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

# 버튼 하나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홈 구현

**삼성전자**

###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25일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국내에 출시한다.

더 쉽게 스마트홈을 구현해주는 제품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5일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에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하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품 뿐 아니라 매터, 지그비 등 다양한 제품을 연동할 수 있다.

제품 상단에 '스마트 버튼'은 맞춤형 루틴 기능을 바로 실행해준다. 짧게 누르거나 두번 누르기, 길게 누르기 등 터치 방식으로 앱 실행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리모컨 등도 바로 찾아준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지원해 스마트 버튼을 두번 눌러 제품에서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따로 구매해 장착할 수도 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 15W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버즈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냉각팬을 내장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충전 효율도 높였다.

아울러 무선 충전시 루틴을 동시에 실행하는 기능도 더했다. 침실에 누워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전자기기 등을 끄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음달 28일까지 제품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스마트태그나 동작감지센서 등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김재웅기자 juk@

# 컴투스 '크로니클' 글로벌 공략 속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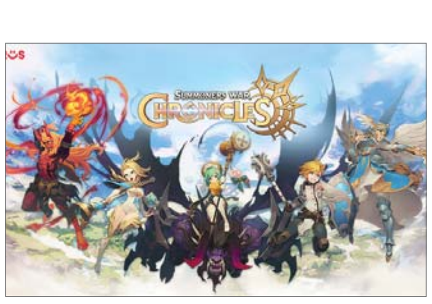
### 내달 '타이페이 게임쇼' 참가
### 작품 속 배경 재현 부스 준비

컴투스가 소환형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의 타이페이 게임쇼 참가를 알리면서 글로벌 공략에 속력을 낸다.

컴투스는 24일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타이페이 난강 전시장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 행사 '타이페이 게임쇼 2023'에 참석해 '크로니클' 부스를 선보인다.

해당 부스는 작품 속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크로니클 부스를 방문한 글로벌 팬들에게 현실감 높은 경험을 선사한다.

소환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대만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함께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지 팬들에게 '크로니클'을 미리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컴투스 소환형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 /컴투스

/최빛나 기자 vitna@